

#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결정하는 요인\*

Deciding Factors in the Baby-boomer Generation and the Elderly Making the Choice  
of Living with Adult Children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광 인 숙\*\*

Department of Silver Welfare, Woosuk University  
Professor In-Suk Kwa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ference f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of the baby-boomer generation and the elderly based on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values of their children and the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The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was done by the Ministry of Equality and Family in 2010. Respondents were 664 baby boomers and 628 elderl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aby boomers rely heavily on their spouse, whereas the elderly rely heavily on their children. While both groups desire to live with their spouse in their later years, and the elderly rely the most on their children, they are reluctant to live together. This result shows that the elderly have high expectations for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but in reality, the elderly have lower expectations for living together and they prefer to live alone or with their spouse.

Second, the boomers, who for the most part live in big cities, have comparatively high average monthly income and jobs and own a house, consider filial obligation as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yet tend to live independently. The boomers, who have a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광인숙 (kwak1526@yahoo.co.kr)

relatively high education level, consider living with aged parents as the children's obligation and consider their children as the most reliable people in their lives, and thus have high expectations to live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ird, the elderly, with a spouse, who consider having raised children to be their happiness, while considering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aging parents to be the children's 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accept that the obligation of support lies on themselves, the government or the society, and thus have lower expectations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in later years. The elderly, now living with their family, with generous financial plans for their aging years and considering the children's success as their own success, have higher expectations of living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Key Words :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preference for living with adult children),  
부모부양의식(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parental dependency on their adult children)

## I. 서론

오늘날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대비는 더욱 시급하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가 대량으로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2020년부터는 더욱 가속화된 노인의 수적 증가로 전체 인구에 있어서 생산인구비율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노인부양지수는 15%로 1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5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되는 구조다. 2020에는 노인부양지수가 21.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1). 또한 2011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는 연금수령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30%에 불과하며, 이는 노인 3명중 2명은 노후연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조사된

노인가구의 월평균가구소득은 157만 5천원이며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속하는 노인이 48.7%로 즉 노인가구의 절반이 이에 해당되며(계명대 산학협력단, 2008), 경제적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노부모부양은 성인자녀에 의한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6; 조병은, 2006).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부양은 효사상과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주로 장남과 며느리 중심, 즉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의 서구적 가치와 혼재됨으로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무감이 희석되어져 가족에 의한 부양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양에 대한 개념도 서구의 경우는 기능취약노인이나 인지취약노인들을 위한 도구적 부양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의 기능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노인과 기능이나 인지력 등이 취약한 노인 모두가 부양을 받을 수 있

다고 여기며, 부양에 대한 의식도 광범위하게 자식의 부모에 대한 다양한 행동이나 의식을 부양으로 보고 있어(최혜경, 2000), 부양행동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 부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감이 부양제공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최혜경·김윤정, 1997; 최혜경, 2001; 이현주, 2005), 부양을 맡은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일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들(김태현·전길양, 1997; 최혜경·김윤정, 2000; 한경혜, 1998; 김수영, 2003)이 이루어졌다. 또한 성공적인 노후와 관련된 연구들(이신숙·이경주, 2002;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 2006)에서는 노인들이 성공적 노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양체계를 통해 노인들이 필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각각의 노인의 삶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부양체계를 구별되게 수립함으로써 개별적인 욕구 충족을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하며(통계청, 2010), 이들 중에서 2010-2018년까지 9년에 걸쳐 311만명이 현직에서 은퇴할 예정이며, 그 수가 많아 이들이 부양이 필요한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노후생활은 현재의 노인과는 다른 욕구와 삶의 유형이 예상되므로 또 다른 노후부양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는 현재의 노인과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경험한 세대이므로 이들의 노후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현재의 노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최근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베이비부머를 핵심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고용, 소득보장, 건강관리, 노후설계 등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가 2010년부터 은퇴의 시작을 맞이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으며, 소비를 주도했던 세대이므로 이들의 은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정경희 외, 2010)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대량 은퇴와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칠 고용, 소득보장, 부동산차분, 보험·투자 상품 시장에 관련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삼성경제연구소, 2010; 통계청, 2010)와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경제적 자원관리, 은퇴 준비, 은퇴후 경제적 자원배분 등에 대한 연구(백은영, 2011; 서지원, 2012; 여운경·김진호, 2007) 등이 수행되었다. 아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측면이외의 삶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최근 노후복지욕구에 관한 연구(정경희, 2011a), 삶의 질(김미령, 2011) 등이다. 그러나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는 현재의 노인과는 성장배경이나 교육환경, 직업적 경험 역시 매우 다른 과정을 거쳐 왔으며, 노부모부양에 대한 생각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세대는 노후생활에 대한 요구와 희망하는 노후의 부양유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노인복지수준의 향상 측면에서도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노인과 베이비부머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의 부양체계를 파악하고, 성인자녀와 동거부양을 희망하는 노인의 상황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량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때에 그

들이 현재의 노인과 다른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거부양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노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상호 절충하여 부양부담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노후부양의 유형

부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뜻(국어대사전)으로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살면서 곁에서 돌보지 않더라도, 떨어져서 지내면서 경제적인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도 상용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부양은 부양의 정도에 따라 생활유지의 부양과 생활부조의 부양으로 나누어진다(사회복지학사전(2009)). 생활유지 부양은 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 사이, 부모와 미성숙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해 본질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이므로 한 개의 뺑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할 관계이다. 생활부조 부양은 제2차적 부양의무로 일반적으로 친족부양이라고 할 때에는 이를 의미하며, 협의(協議)의 부양이라고도 한다. 조추용(2004)은 좁은 의미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자신의 사적인 지지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사회적 대처를 통한 충족까지도 노인부양으로 정의하였다. 김명자·손서희(2005)는 부양이란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서양이 도구적 부양만을 부양으로 보는 경우와는 달리 정서적, 도구적, 서비스적, 사회참여적 부양 등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다양한 행동이나 의식을 부양으로 본다(최혜경, 2000). 따라서 가족에게 집중되던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분산하기 위하여 도구적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하면서 부양체계를 다차원적인 경로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김태현(1982)은 부양의 종류는 정서적 부양은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것, 경제적 부양은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적 부양은 신체적 독립과 가사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질병시 부축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신숙 외(2002)는 사회적 지지를 노인과 감정적 유대 및 안정감과 신뢰감 등 심리적 의존성을 해결해주는 정서적 지지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의존성을 해결해 주는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김미혜 외(2006)은 노인에게 제공되는 자원들을 기준으로 하는 부양의 종류는 크게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으로 이분되며, 도구적 부양 안에 경제적 부양, 서비스적 부양, 사회참여적 부양, 간병 등의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노후부양은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양을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성인자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노후부양을 책임지는 3세대 동거부양 혹은 자녀부양과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개인 또는 노인부부가 스스로 부양을 해결하는 개인부양이 있으며, 이 둘을 개별부양이라고 하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곽인숙 외, 2009). 그러나 2011년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2005년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전체 노인의 33.0%,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18.1%에서 2008년에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39.8%,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26.7%, 2011년에는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48.5%,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19.6%로 변화되어(통계청, 2011)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증가추세가 완화되었으나,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은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는 외부 서비스 이용이 압도적(67.2%)이며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노후에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에서도 93.2%가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세대의 자녀 의존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았다(정경희, 2011a). 따라서 현재의 노인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노후에 자녀동거부양보다는 배우자부양이나 독립부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2.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자원부족과 사회 복지대책의 미비로 자녀에게 더 의존하고, 자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부양과 지원을 받게 되나, 자녀와 별거하면 자녀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줄어든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은 식사준비나 신체적 지원 등을 더 많이 제공받게 되나 점차 가족부양의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모선희, 1999;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5).

성인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는 경우 노인의 우울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이윤정, 1994; 조병은, 1990)도 있으며, 자녀와의 동거, 분거가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간의 결속, 애정적 관계, 계속적인 만남 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태현·김수정, 1996)도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노인들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식을 힘들게 해서 안되며,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는 노인은 불행하다고 털어놓는다(김미혜 외, 2006; 정

병은, 2007).

결혼한 성인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은 남녀노인의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영되고 있어, 여성노인의 경우는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유성호, 1997). 그러나 사별한 독신 남성노인에게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자녀와의 동거가 노인들의 생활만족이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가옥 외, 1994; 김태현 외, 1996)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원영희, 1995; 유성호, 1997; 박현정·최혜경, 2001; 한경혜·윤순덕, 2001)들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은 노인부부가구 및 가족동거노인에 비하여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주변환경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우며,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건강상태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순돌, 1999; 한경혜 외, 2001; 이은정, 2003). 독거노인의 건강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이므로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며, 독거노인에게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자녀이므로 자녀와의 연락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김태현·한은주, 2004).

노부모세대가 과거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됨에 따라 노부모세대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관점이 대두되어 여러 연구들(김정석·김익기, 2000; 한경혜·홍진국, 2000)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노인보다는 자녀에게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자녀에게 지원을 많이 제공할수록 특히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교환이 많을수록 노인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부모의 경우 지원받는 정도와 노인의 심리적 안녕이 관계가 없거나(윤현숙, 2003),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른 것(이형실, 2003)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자녀와의 별거 자체가 가족지원의 교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연구 들에서 별거하는 가구를 넘어서는 가족지원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경제적 자원이 적고 일상활동의 제한을 받는 노인 들에게는 세대간의 동거를 통한 가족 지원이 가장 효과적(김정석, 2007)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병은(2007)과 김정석 외(2000)등의 연구결과 자녀와의 동거가 노부모부양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따로 사는 노인에 비해서 자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며 자원교환이 많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녀와 같이 산다고 해서 자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된다(박인아·엄기욱, 2007; 정병은, 2007). 자녀와의 동·별거 여부보다는 건강, 경제수준 등 노인의 의존성, 자원보유 정도 등을 나타내는 상황적 특성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외, 2001).

노부모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양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노부모의 일상생활능력이 낮아 의존적일 때, 주부양 자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동거자녀에게 부담을 준다(성미애, 1991; 윤순덕·한경혜, 1994). 또한 노모와의 관계는 부양상황보다는 자녀가 부양에 따라 경험하는 대가는 많고, 보상은 적은 일방적인 노모수혜형일 경우 부양자녀와 노모의 관계의 질이 가장 낮았다(조병은·신화용, 2004).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수발부담을 배우자와 성인자녀 수발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윤현숙·류삼희(2007)의 연구결과 배우자가 자녀보다 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의 수발부담에서 더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발자의 정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의 인지적 기능손상 정도와 사회적지원에 대한 평가였는데 인지손상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지원이 낮을수록 부양자의 정서적 부담이 높았다.

부모와의 동거 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 패턴의 차이, 자녀교육에 대한 노부모의 간섭, 재산상속과 양도의 문제 등이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의무로 인식하고 큰 불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부모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노부모는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장남의 부양의식 약화, 모든 자녀들의 부양분담의식의 증폭 등으로 인해 노부모 부양은 가족 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요소로 존재하고 있다(조성남, 2006).

동거하는 부모부양으로 인한 갈등은 노부모의 의존성이 크게 작용하지만 아동기부터 적절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애정적 유대감이 있는 경우 갈등의 수준이 낮아지므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정서적 차원의 가족결속이 중요하며(박인아 외, 2007), 이것이 다시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된다(김효정·김명자, 1995).

노부모부양이 부양자녀에게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노부모의 건강수준이나 경제상태 등에 따라 부양부담이나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부양의 문제는 노부모가 젊거나(60중반에서 70대 초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남이 아닌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 보다는 부모와의 동거로 인해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조성남, 2006).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세대 가족이 시부모 부양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형제자매의 지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평가하며, 농촌지역 부양자들이 도시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부양부담은 더 적게 느끼고 혜택은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시부모 두분과 동거하는 경우 부양부담도 높아지지만, 부양혜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화·한경혜, 2000).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인들이 경제적 으로나 신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자녀와 분가하여 살기를 희망하나 정서적 유대는 긴밀하게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부모에게 꼭 행복함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노부모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경우 자녀와의 동거는 심리적인 충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나빠거나, 특히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력이 없는 경우, 노부모의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면 성인자녀와 부양가족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 관련요인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노인의 개인적 상황과 여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의 건강상태와 배우자유무이다. 노년기에도 부부가 동거하며 건강할 경우 자녀와의 별거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지만(오찬옥·이연숙, 1993; 꺾인숙, 1998; 꺾인숙 외, 2009),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와의 동거(꺾인숙, 1998)나 노인전용주거나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서비스 부양을 선호하는 경향(김미희, 2006; 정경희, 2001)이 있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면 노인의 의사나 선호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노인시설의 선택

이 불가피해진다(꺾인숙, 1998). 그러나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시설에서 부양하는 것보다 노인이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인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Pynoos, 1987).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소득, 취업여부, 자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인수(2003), 김순미·홍성희·김혜연·김성희(2004)는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은 자녀와 별거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유성호, 1993; 김경혜, 1998; 꺾인숙 외, 2009)에서 거주지, 배우자유무, 월소득, 자녀수, 교육수준, 연령 등이 자녀와의 별거를 결정해주는 주요 변인으로 꼽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령이 낮으면 건강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인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동거하는 부양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주지(모선희, 1999)를 꼽았는데 박신영·최은희·지은영(2006), 박경숙(2003) 등의 연구에서 도시 고령자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이 농촌 고령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지역 노인들은 자녀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고향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세대간 격리현상을 가중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노년기에는 생활범위가 가족에게로 축소되는 시기이므로 가족 간의 유대와 지지가 중요한데, 특히 자녀의 부양의식이 희박해지고 실제 동거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한편, 노부부만 남게 되는 노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존재와 지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노후부양유형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립적 부양 또는 배우자부양이라

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년기에는 정서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을 선호하게 되며,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자신의 선호와는 별개로 부양유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노후에 부양유형의 선택시 자녀와의 동거가능성을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성인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수, 2003). 따라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수가 노인의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장년집단(45-64세)에 비해 전통적인 아들선호사상이 강하고 노후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장남의 부모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는 자녀로부터 높은 정도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으나, 장년집단은 효의식에서 차이를 보여 세대간 갈등이 예상된다(윤현숙·류삼희, 2005).

노인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자녀부양 기대가 높고(윤현숙 외, 2005), 연령이 적을수록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보다 자신에게 있다는 독립부양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김정석, 2001). 연령 그 자체는 자녀와의 동·별거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연령의 증가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저하시키므로 자녀와의 동거를 고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거주형태를 분석한 김정석(2007)은 자녀와의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확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지속한 노인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거에서 별거로의 전이확률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 배우자유무, 성별 등이 자녀와의 동·별거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개발원(2005)의 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인부양은 능력 있는 자녀가 모셔야한다는 응답

이 40%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모 스스로가 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였으며, 돌봄 비용 부담은 노인을 모시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4.6%로 나타나 과거 장남 가족이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의식(김태현, 1994; 이가옥 외, 1994)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인세대와 비교할 때 부모부양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임연옥·박재연·윤현숙, 2010), 이들은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등에 충실한 집단으로 부모부양은 하지만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는 않는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력과 자신의 의지대로 거동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소득이나 노후 대비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과 같은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노후 부양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후, 이들 독립변수들이 개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은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가 되는 대상,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부모부양의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

적 변인들과 심리적인 변인들은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1)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독립변수로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 거주지역, 성별, 연령, 건강상태, 경제상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성인자녀와의 동거	1=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 0=성인자녀와의 별거희망
<b>독립변수</b> <b>사회인구학적 요인</b>	
성별 <sup>D</sup>	1=여성 0=남성
연령	만 나이
거주지역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지역
교육수준	1=무학/초중퇴 2=초졸/중중퇴 3=중졸/고중퇴 4=고졸 5=대졸 이상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대체로 좋음 5=매우 좋음
배우자유무 <sup>D</sup>	1=배우자 있음 0=배우자 없음
가족동거여부 <sup>D</sup>	1=가족과 동거 0=현재 혼자 살고 있음
총자녀수	자녀(아들과 딸)의 수
주관적 경제상태	1=하층 2=중하류층 3=중류층 4=중상류층 5=상류층
월평균 가계소득	지난 1년간 가족의 총소득
직업유무 <sup>D</sup>	1=직업 있음 0=직업 없음
주택소유 <sup>D</sup>	1=자가 0=임차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sup>D</sup>	1=준비했음 0=준비하지 않았음
<b>자녀에 대한 가치</b>	
자녀의 성장은 즐거움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그렇다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	
<b>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b>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그렇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딸, 아들 부모를 돌보아야 함	
부모부양의 책임	1=자녀 2=부모자신 3=국가나 사회
가장 의지하는 대상	1=부모 2=배우자 3=자녀 4=애인 5=형제자매 6=친구 7=동료 8=이웃 9=성직자 10=자기자신 11=기타 12=의지할 사람 없음

때, 소득수준, 배우자유무, 총자녀수, 직업유무, 주택소유, 현재 가족과의 동거여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여부를 선정하였다.

#### (2)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3문항)과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3문항), 부모부양의 책임,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대상 등을 심리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은 노후를 누గు와 지내고 싶은가에 대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자료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CAPI 방식의 일대 일 방문면접조사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8월 -10월까지였다. 원 자료는 전국 2,500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이상 4,754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에 맞추어 베이비부머세대(49-57세) 664명과 노인(65세 이상) 628명을 선정하여 총 1,292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조사자료의 분석은 모집단인 전국 일반가구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2차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에 2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조희금 외, 2010).

####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0.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파악하였고,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개인적 요인과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중 베이비부머세대는 664명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50.3%, 여성은 49.7%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지역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소도시가 35.2%, 읍면지역이 14.6%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교졸업이 26.7%, 중학교졸업이 17.0%, 초등학교졸업이 7.5%, 무학 및 초등학교중퇴가 0.9%였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전체의 6.1%로 아주 적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2.5%였다. 현재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95.4%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자신이 중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3.3%, 중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7.9%였으며, 하층은 11.9%, 중상류층은 6.7%, 상류층은 0.2%였다. 월평균가계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300-399만원이 21.5%, 200-299만원이 17.6%, 100-199만원이 13.2%, 99만원 이하가 6.5%였다. 조사대상자중 직업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가 46%였으며, 주택은 자가인 경우가 5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 경우는 57.3%였다. 평균자녀수는 2.014명이었다.

조사대상자중 노인은 628명이었으며, 성별은 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광  
남성 44.4%, 여성은 55.6%로 여성이 조금 많았 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지역이 42.2%로 가장 많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92)

베이비부머(664)				노인(628)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334	50.3	성별	남성	279	44.4
	여성	330	49.7		여성	349	55.6
거주지역	대도시(특/광역시)	333	50.2	거주지역	대도시(특/광역시)	265	42.2
	중소도시	234	35.2		중소도시	186	29.6
	읍면지역	97	14.6		읍면지역	177	28.2
교육수준	무학	6	0.9	교육수준	무학	145	23.1
	초등학교졸업	50	7.5		초등학교졸업	229	36.5
	중학교졸업	113	17.0		중학교졸업	102	16.3
	고등학교졸업	318	47.9		고등학교졸업	97	15.5
	대학교졸업 이상	177	26.7		대학교졸업 이상	54	8.6
자녀유무	자녀 없음	40	6.1	자녀유무	자녀 없음	35	5.6
	자녀 있음	624	93.9		자녀 있음	593	94.4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83	12.5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218	34.6
	배우자 있음	581	87.5		배우자 있음	411	65.4
가족동거여부	가족과 동거	633	95.4	가족동거여부	가족과 동거	506	80.6
	독거	31	4.6		독거	122	19.4
경제상태	하층	79	11.9	경제상태	하층	149	23.7
	중하류층	251	37.9		중하류층	267	42.4
	중류층	288	43.3		중류층	187	29.8
	중상류층	44	6.7		중상류층	24	3.8
	상류층	1	0.2		상류층	2	0.3
월평균가계소득	99만원 이하	43	6.5	월평균가계소득	99만원 이하	219	34.9
	100-199만원	88	13.2		100-199만원	187	29.8
	200-299만원	117	17.6		200-299만원	85	13.6
	300-399만원	143	21.5		300-399만원	83	13.2
	400만원 이상	274	41.2		400만원 이상	53	8.5
직업유무	직업 없음	306	46.0	직업유무	직업 없음	501	79.8
	직업 있음	358	54.0		직업 있음	127	20.2
주택소유	자가	339	51.0	주택소유	자가	277	44.1
	임차	325	49.0		임차	351	55.9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준비했음	380	57.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준비했음	175	27.8
	준비하지 않음	284	42.7		준비하지 않음	454	72.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녀수(명)		2.014	0.692	자녀수(명)		3.207	1.341

으며, 다음으로는 중소도시가 29.6%, 읍면지역이 28.2%로 노인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학 및 초등학교중퇴가 23.1%, 중학교졸업이 16.3%, 고등졸업이 15.5%, 대학교졸업이 8.6%로 노인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전체의 5.6%로 아주 적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4.6%로 베이비부머세대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현재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80.6%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자신이 중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9.8%,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3.7%였으며, 중상류층은 3.8%, 상류층은 0.3%였다. 월평균가계소득은 99만원 이하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100-199만원이 29.8%, 200-299만원이 13.6%, 300-399만원이 13.2%, 400만원 이상이 8.5%로 베이비부머세대보다 낮았다. 조사대상자중 직업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가 79.8%였으며, 주택은 자가인 경우가 44.1%,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 경우는 27.8%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노후에 대한 대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자녀수는 3.207명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평균 1명 정도 많았다.

## 2. 가장 의지가 되는 대상과 노후생활방식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자의 64.7%가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23.8%로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베이비부머세대는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가 78.8%였으며,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8.7%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향은 정경희(2011a)의 연구에서도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부부관계 중심으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배우자이지만 전체 노인의 49.8%였으며,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39.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들 선호사상이 강하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연구들(윤현숙 외, 2005; 김정석, 2007)과 일치하고 있다.

노후에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살겠다는 비율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경우가 평균 15.1%이며, 베이비부머세대는 11.6%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했지만 노인은 18.8%가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

〈표 3〉 가장 의지하는 대상과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 (N=1,292)

		베이비부머(664)	노인(628)	빈도(%)	$\chi^2$
		빈도(%)	빈도(%)		
가장 의지하는 대상	배우자	523(78.8)	313(49.8)	836(64.7)	173.761***
	자녀	58(8.7)	250(39.8)	308(23.8)	
	기타	83(12.5)	65(10.4)	148(11.5)	
노후생활방식	배우자와 함께	518(78.0)	434(69.1)	952(73.7)	15.379***
	자녀와 함께	77(11.6)	118(18.8)	195(15.1)	
	공동생활	69(10.4)	76(12.1)	145(11.2)	

\*  $p<.05$  \*\*  $p<.01$  \*\*\*  $p<.001$

이러한 결과는 김정석(2001), 김미혜 외(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노인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의 비율에서 자녀가 높았지만 실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18.8%로 낮았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69.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은 자녀에게서 돌봄과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 동거부양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고 오히려 노인 혼자 또는 노인부부만 함께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자녀의 성장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집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노인집단에서 베이비부머세대보다 높

게 나타나( $p < .001$ )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에서 ‘딸도 아들과 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함’이라는 생각은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집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p < .001$ ),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p < .01$ )는 생각은 베이비부머세대보다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은 아들이건 딸이건 나이든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부양의 책임이 노인의 75.6%가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베이비부머세대는 부모부양의 책임이 자녀라는 비율이 68.4%로 낮고, 반면 부모 자신이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1.4%로 노인보다 비율이 높았다( $p < .01$ ). 베이비부머세대는 자신이 노후를 책임져야 되며, 자녀는 키우는 동안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의 동거부양에 대한 희망은 낮으

〈표 4〉 자녀에 대한 가치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N=1,292)

베이비부머(664)			노인(62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값
자녀성장은 즐거움	3.94	0.753	자녀성장은 즐거움	3.93	.722	N.S.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	3.70	0.839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	3.85	0.832	3.190***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	3.99	0.728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	3.95	0.806	N.S.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3.21	0.874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3.38	0.869	3.48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3.40	0.841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3.52	0.856	2.574**
딸도 아들과 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함	3.56	0.755	딸도 아들과 같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함	3.55	0.805	N.S.
	빈도	%		빈도	%	$\chi^2$
부모부양 책임 자녀	454	68.4	부모부양 책임 자녀	475	75.6	9.593**
부모자신	142	21.4	부모자신	95	15.1	
국가사회	58	8.8	국가사회	58	9.3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들딸 구분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측면은 자신이 책임지지만 정서적 부양과 같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개인적 요인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

베이비부머세대는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11.6%였으며, 개인적 요인 중 성별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직업이 없는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직업의 종류중 직업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가장 높은 15.4%였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종사자는 10.2%, 사무관리직은 6.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p.<05).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한 집단(8.7%)보다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15.5%로 높게 나타났다(p.<01). 월평균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낮아져 4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6.6%가 동거를 희망한 반면, 15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15.4%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였다(p.<01).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서는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9.8%로 가장 낮았으며, 자녀를 가장 의지하는 집단에서는 24.1%가 노후를 성인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부모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이 13.4%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부양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가장 낮아 5.6%만이 동거를 희망하였다(p.<05).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는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18.8%로 베이비부머세대보다 높았으며, 개인적 요인 중 성별에 따라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와 함께 동거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노인은 13.3%인데 반해, 여성노인은 23.2%로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p.<001). 이는 김두섭 외(2005)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은 장남부부에게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직업이 없는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22.2%로 높게 나타났다(p. <001). 직업의 종류에서 직업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가장 높은 20.6%였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종사자는 20.0%, 사무관리직은 아무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자녀와의 동거희망이 11.2%인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는 33.0%가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경향은 김정석(2007)의 연구결과 자녀와의 별거에서 동거로의 전이확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지속한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에서 자녀와의 동거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한 집단(8.6%)보다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22.7%로 높게 나타났다(p.<001). 가계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아졌으며,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44.4%로 동거희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50만원 미만인 집단은 14.4%로 동거희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인 자녀인 집단에서는 31.2%가 노후를 성인자녀와 동거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의지대상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집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4.6%로 가장 낮았다(p.<001). 부모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부양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가장 낮아 5.2%만이 동거를 희망하였다(p.<001). 교육수준은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과 배우자유무는 노인세대에서만 집단간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가계소득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득이 많을수록 독립부양을, 노인은 소득이 많

을수록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소득은 세대간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후에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의 동거희망과 독립적인 삶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표 5〉 개인적 요인에 따른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 (N=1,292)

개인적 요인		베이비부머			노인		
		별거 (88.4)	동거 (11.6)	$\chi^2$	별거 (81.2)	동거 (18.8)	$\chi^2$
성별	남성	295(88.3)	39(11.7)	N.S.	242(86.7)	37(13.3)	10.055***
	여성	292(88.5)	38(11.5)		268(76.8)	81(23.2)	
직업	직업있음	370(90.5)	39(9.5)	4.413*	152(90.5)	16(9.5)	12.905***
	직업없음	217(85.1)	38(14.9)		358(77.8)	102(22.2)	
직업의 종류	주부, 무직	259(84.6)	47(15.4)	8.780*	398(79.4)	103(20.6)	7.808*
	사무관리직	142(93.4)	10(6.6)		15(100.0)	0(0.0)	
	서비스업	88(89.8)	10(10.2)		24(80.0)	6(20.0)	
	기술직종사자	99(90.8)	10(9.2)		73(89.0)	9(11.0)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	517(89.0)	64(11.0)	N.S.	365(88.8)	46(11.2)	44.562***
	배우자 없음	71(84.5)	13(15.5)		146(67.0)	72(33.0)	
노후경제적준비	준비했음	348(91.3)	33(8.7)	7.511**	159(91.4)	15(8.6)	16.311***
	준비없음	239(84.5)	44(15.5)		351(77.3)	103(22.7)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66(84.6)	12(15.4)	11.328**	292(85.6)	49(14.4)	27.721***
	150-400만원미만	266(85.0)	47(15.0)		189(80.8)	45(19.2)	
	400만원 이상	255(93.4)	18(6.6)		30(55.6)	24(44.4)	
교육수준	중학교졸업이하	149(88.7)	19(11.3)	N.S.	378(79.4)	98(20.6)	N.S.
	고등학교졸업	286(89.9)	32(10.1)		84(86.6)	13(13.4)	
	대학교졸업이상	152(85.9)	25(14.1)		47(87.0)	7(13.0)	
의지대상	배우자	472(90.2)	51(9.8)	11.298**	275(88.1)	37(11.9)	43.559***
	자녀	44(75.9)	14(24.1)		172(68.8)	78(31.2)	
	기타	71(85.5)	12(14.5)		62(95.4)	3(4.6)	
부모부양책임	자녀	393(86.6)	61(13.4)	6.425*	369(77.8)	105(22.2)	16.065***
	부모자신	134(94.4)	8(5.6)		91(94.8)	5(5.2)	
	국가, 사회	60(88.2)	8(11.8)		50(86.2)	8(13.8)	

\* p<05 \*\* p<01 \*\*\* p<001

N.S. ; Not Significant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logistic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표6 참조).

베이비부머세대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은 Wald 통계량 256.089(p<.001), 자유도 22,  $\chi^2$  통계량 92.843 (p<.001)로 나타나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직업유무, 주택소유, 부모부양의식, 부모부양의 의무, 가장 의지하는 대상 등이었다. 농촌지역보다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66%

낮아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선희(1999), 박경숙(2003), 박신영 외(2006)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1년씩 높아질수록 동거희망비율이 1.125배 높았다. 월평균가계소득은 50만원씩 많을수록 동거희망비율이 10.1%씩 낮아졌다. 직업이 있는 경우 56%, 주택을 소유한 경우 55.2% 동거희망비율이 낮아졌다. 부모부양의식에서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동거희망비율이 2.310배씩 높아졌다. 부모부양의 의무가 부모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자녀가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표 6〉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N=1,292)

	베이비부머			노인		
	P.E.	S.E.	Exp(B)	P.E.	S.E.	Exp(B)
성별 <sup>D</sup>	-.527	.364	.590	-.424	.322	.654
거주지역(대도시)	-1.079**	.440	.340	-.027	.377	.973
거주지역(중소도시)	-.209	.407	.811	-.034	.365	.967
교육수준	.117*	.057	1.125	-.064	.035	.784
건강상태	-.346	.197	.708	-.243	.150	.784
배우자유무 <sup>D</sup>	-.202	.538	.817	-2.022***	.393	.132
가족동거여부 <sup>D</sup>	-.648	.809	.523	1.762***	.424	5.824
총자녀수	.157	.198	1.170	.150	.101	1.162
주관적 경제상태	.252	.243	1.287	-.075	.197	.928
월평균 가계소득	-.107*	.055	.899	.074	.047	1.076
직업유무 <sup>D</sup>	-.813*	.368	.444	-.512	.419	.599
주택소유 <sup>D</sup>	-.804**	.315	.448	-.077	.305	.926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sup>D</sup>	.009	.330	1.009	.909*	.404	2.482
자녀의 성장은 즐거움	.114	.237	1.120	-.455*	.233	.634
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	-.093	.199	.912	.153	.223	1.166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	-.407	.235	.666	.775***	.241	2.170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함	.944***	.222	2.310	.275	.203	1.317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함	-.319	.213	.727	-.425*	.220	.654
딸,아들 부모를 돌보아야 함	.117	.228	1.124	.322	.183	1.380
부모부양의 의무(부모자신) <sup>D</sup>	-1.160**	.437	.345	-1.117*	.541	.327
부모부양의 의무(국가나 사회) <sup>D</sup>	-.072	.466	.931	-1.003*	.522	.367
가장 의지하는 대상(자녀) <sup>D</sup>	1.603**	.511	4.970	.462	.328	1.587
상수	-1.601		1.670	-3.417*		1.491
Log Likelihood	361.099*** (88.9%)			504.947*** (84.6%)		

\* p<.05 \*\* p<.01 \*\*\* p<.001



경우보다 65.5% 동거희망 비율이 낮아졌다. 또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자녀일 경우 동거희망비율이 4.970배 높아졌다. 전체 분류정확도는 88.9%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자녀일 경우 동거희망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성인자녀와 별거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김경혜, 1998; 유성호, 1993, 2000)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은 Wald 통계량 185.142 ( $p < .001$ ), 자유도 22,  $\chi^2$  통계량 162.198 ( $p < .001$ )로 나타나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유무, 가족동거여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부양의식, 부모부양의 의무 등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86.8%로 낮아졌으며 이는 기존연구(오찬옥 외, 1993; 유성호, 1996; 곽인숙 외, 2009)들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희망비율이 5.824배 높았는데 이는 김정석(2001), 유성호(1996) 등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 경우 동거희망비율이 2.482배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현정 외(2001)의 연구에서 자립적 수입원이 있는 노인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성장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할수록 동거희망비율이 36.6%씩 낮아졌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할수록 동거희망비율이 2.170배씩 높아졌다. 그러나 부모부양의식에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34.6%씩 동거희망비율이 낮아졌다. 부모부양의 의무가 부모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자녀가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67.3%씩, 부모부양의 의무가 국가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동거희망 비율이 63.3%씩 낮아졌

데 이러한 결과는 박현정 외(2001)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체 분류정확도는 84.6%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녀에 대한 가치, 노부모부양 의식, 노후부양 책임 등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세대는 심리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더 많이 선택했으며,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인은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두 집단 모두 노후에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인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은 자녀가 많았지만 실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은 자녀에게서 돌봄과 경제적 부양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 동거부양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고 오히려 노인 혼자 또는 노인부부만 함께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이 될 시기에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가족부부나 독거노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살핌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세대는 자신이 노후를 책임져야 되며, 자녀는 키우는 동안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동거부양에 대한 희망은 낮으나, 아들딸 구분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측면은 자신이 책임 지지만 정서적 부양과 같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

부머세대는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읍면지역보다 동거희망비율이 낮아졌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거주지역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의 차이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독특한 집단적 특성과 함께 집단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한경혜, 2010)이 그 영향요인으로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도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이 진행되었지만 지역이나 성별에 따라 기회가 균등하지 않게 주어졌고 따라서 교육수준의 계층적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노인은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아들이건 딸이건 나이든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모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비부머세대보다 높았다.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현재 가족과 동거여부로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희망비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세대는 성별, 배우자유무가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노인들은 이 두 변인에 의해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차이를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노인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베이비부머세대는 성인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독립적인 부양을 선호하고 있어, 노년기를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독거의 형태로 전환되는 유형이 노년기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정경희, 2011b)된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증가에 대비하여 이들의 사회적 소외의 문제와 비동거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적지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노후에 성인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노인들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하

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현재 노인보다 훨씬 독립적인 삶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에 의한 부양보다는 배우자부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는 배우자부양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다. 배우자인 여성노인이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의 연령이 많으며, 질병 등으로 부양자가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신체적 허약으로 서비스적 부양을 위한 신체적 돌봄이나 간병 등이 어렵게 되며, 생계책임자인 남편의 능력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다. 남성부양자인 경우에는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즉 경제적 부양의 경우는 소득보장을 위한 부양체계의 확충,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부양의 경우는 사회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상적인 지원과 신체적 돌봄서비스의 활성화 등이 요망된다.

둘째,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고, 자녀와의 별거인 경우에도 세대간 가족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경제적 자원이 적고 일상활동의 제한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세대간의 동거를 통한 가족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며,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동거하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노인부양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적 부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부양가족의 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기로 진입하게 될 경우 기존의 노인세대에 비해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가족간의 정서적 기능의 약화로 인해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소외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재정립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이 요망된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자녀와 노인 세대간 차이 극복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요망된다. 노인독신가구의 증가 또한 예상되므로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화가 요망된다.

넷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비율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경제력이 약한 노인 부양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근로의 기회확대와 같은 소득보장지원정책이 요망된다.

다섯째,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는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이 낮으나 이들이 연령이 높아져 건강상태가 돌봄이 필요해지거나, 배우자가 사망해 혼자자가 되는 경우에도 성인자녀와의 별거를 선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중단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는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성인자녀와의 동거시에는 지나친 의존성이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건강 및 의료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는데 따른 한계점으로 성인자녀와의 동거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 또는 자원들과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석틀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조사대상이 전국적인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독립적 부양을 희망하는 노인과 베이비부머세대의 거주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주거요인, 동일 코호트 내에서의 이질성에 의한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 1)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2008 전국노인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2) 박인숙(1998). 노인의 직업과 건강상태에 따른 주거선호. 대한가정학회지, 36(11), 43-59.
- 3) 박인숙(2011). 노인의 자녀와 동거희망과 지속 거주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고령노인기를 가정하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2(6), 83-95.
- 4) 박인숙·홍성희(2009). 노후의 부양유형과 주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3(4), 17-38.
- 5) 김경혜(1998).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1), 107-122.
- 6)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90.
- 7)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5).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 유형과 결정요인. 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8)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37-51.
- 9)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 한국 노인이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1-14.
- 10)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26(3), 617-639.
- 11) 김미희(200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년층의 노후 주거선호-광주지역의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117-126.
- 12) 김수영(2003). 치매노인 가족부양자의 삶의

-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 가족부양자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사회복지정책, 17, 77-105.
- 13) 김순미·홍성희·김혜연·김성희(2004). 봉급 생활자의 은퇴설계 : 노인부양으로서 유료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42(5), 175-192.
  - 14) 김정석(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노인, 가족, 사회/국가의 역할 : 중년층의 노후부양태도와 준비실태를 중심으로.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15) 김정석(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30(1), 1-24.
  - 16)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17)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김태현·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10-129.
  - 19) 김태현·전길양(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 공유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2), 167-182.
  - 20) 김태현·한은주(2004).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81-106.
  - 21) 김효정·김명자(1995). 청소년기 부모 - 자녀 관계 및 노부모 - 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36-46.
  - 22) 모선희(1999). 노인과 가족 :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81-119.
  - 23)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 의암출판.
  - 24) 박신영·최은희·지은영(2006). 고령자 및 고령진입층의 주거욕구분석. Huri Focus, 14, 1-25.
  - 25) 박인아·엄기옥(2007). 노부모의 의존성이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피학대경험과 부모부양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179-194.
  - 26) 박현정·최혜경(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63-75.
  - 27)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1-20.
  - 28) 삼성경제연구소(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일) 비교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29)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41-66.
  - 30) 성미애(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부담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여윤경·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3), 1-30.
  - 32) 오찬옥·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1), 35-45.
  - 33)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34) 유성호(1993). 재미 한국 노인과 자녀간의 별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3(2), 98-119.
  - 35) 유성호(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36)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37-50.
- 37) 유성호(2000). 노인과 성인남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 그 이론적 탐색 II, 노인복지연구, 8(0), 169-185. 한국노인복지학회.
- 38) 윤순덕·한경혜(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39)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40) 윤현숙·류삼희(2007).
- 41) 윤현숙·류삼희(2007). 장기요양보호노인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배우자와 자녀 비교-. 한국노년학, 27(1), 195-211.
- 42)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1994). 노인 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3) 이신숙·이경주(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1-20.
- 44)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45) 이은정(200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무력감. 최신의학, 46(12), 165-172.
- 46) 이인수(2003).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게 된 이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4(2), 121-132.
- 47) 이정화·한경혜(2000). 노부모 부양부담 및 부양혜택 관련요인 연구-도시와 농촌 비교-.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3-74.
- 48) 임연옥·박재연·윤현숙(2010).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부모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9-102.
- 49) 이철수 외 공저(2009). 사회복지학사전.
- 50) 이현주(2005). 노인부부가구에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1) 이형실(2003).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4), 57-69.
- 52) 장혜경 외 7인(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개발원.
- 53) 정경희(2001). 노년기의 건강.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 54) 정경희(2011a). 베이비붐 세대의 제 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10.
- 55) 정경희(2011b).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72, 1-8.
- 56)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7) 정병은(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503-518.
- 58) 정순돌(1999). 독거노인을 위한 체계망 치료.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177-205.
- 59)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60) 조병은·신화웅(2004).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61) 조성남(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 세대의 인식 : 초점집단토론(FGD)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39-157.
- 62)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 구. 노인복지연구, 24(여름호), 71-99.
- 63) 조희금 · 송혜림 · 박정윤 · 권태희 · 김경화 · 김주현 · 김혜영 · 윤소영 · 윤진숙 · 이진숙 · 정민자(2010). 2010년 제 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64) 최정혜(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9(2), 611-627.
- 65)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10, 141-164.
- 66) 최혜경(2001). 부양형태에 따른 신체취약 노인들의 정신건강. 대한가정학회지, 39(1), 81-90.
- 67) 최혜경 · 김윤정(1997). 한국 치매노인 부양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과정. 한국노년학, 17(1), 35-50.
- 68) 최혜경 · 김윤정(2000). 사회적 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1), 209-223.
- 69) 통계청(2010. 4. 12).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보도자료).
- 70) 통계청(2011). 2011 고령자통계
- 71) 한경혜(1998).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 21세기 변화전망과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18(10), 46-58.
- 72) 한경혜(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 라이프코스과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3.
- 73) 한경혜 · 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8.
- 74) 한경혜 · 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지, 12(2), 55-80.
- 7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76) Pynoos, J, Cohen, E., Davis. L., & Bernhardt, S.(1987). Home modifications improvements that extend independence. In Reginer, V., and Pynoos, J. Housing for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New York : Elsevier, 277-303.

- 투 고 일 : 2012년 9월 27일
- 심 사 일 :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5일